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열려 · 외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을 위한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가 지난 10월 6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다.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출판·서점계 관련인사 10여명이 발표자로 나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 양론을 펼쳤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창연 회장은 "일부 인터넷 서점의 도서할인은 국민들의 편중된 독서 경향을 조장한다"며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보문고의 김성용 영업이사도 "가격 경쟁은 유통 마진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며 "최소한 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도서정가제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베개의 한철희 대표는 "디지털 경제라고 해서 할인판매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며 "도서정가제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출판문화의 질만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출판연구소 윤정광 이사장은 "도서정가제가 붕괴되면 출판사는 살기 위해 도서가격을 올릴 것이고, 그에 따라 출판 도서가격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이사장은 "인터넷 서점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리되 정가제를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출판계도 구간도서에 재정가를 매기는 등의 다양한 독자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종진 사무국장은 "도서가격에 대한 자유경쟁 논리는 미국 등 서구의 논리"라며, "우리나라처럼 출판현실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양질의 책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가제 같은 틀거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가제 고수 입장에 대해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조유식 대표는 "지금까지는 도서정가



지난 10월 6일 열린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의 한 장면. 출판·서점계 관련인사 10여명이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 양론을 펼쳤다.

제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발상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출판계가 경쟁논리 도입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이강인 대표는 "인터넷 서점의 할인은 배송료와 맞먹는다"며 "실제 도서 판매가격은 배송료를 받지 않는 '인터넷 교보문고'나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는 '북도피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인터넷 서점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서점간의 할인경쟁은 있었다"고 말했다. 와우북의 황인석 대표도 정가제 파괴의 원인이 인터넷 서점에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출판사들의 일관된 태도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출판협동조합 직영서점 '르네상스' 개관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최선호)은 지난 10월 11일 여의도공원 옆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1층 로비에 약 250평 규모의 출판물 전시관 '르네상스'를 개관했다. 한국출판협동조합 기획관리실 권명학 실장은 "르네상스는 각 지역별로 소형 서점이 연합해 100평 이상 규모의 중대형 서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업 사업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르네상스는 약 6백여개 출

판사의 출판물 10만여종을 전시·판매하며, 기업체·관공서·도서관 등의 대납서비스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 716-5621

〈파주출판도시 입주를 향한 행사〉 열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10월 10일 〈파주출판도시 입주를 향한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단지의 도시적 성격 재조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설계경기 시상식과 전시회 개막행사, 전수천씨가 제작한 조형물 '지혜의 빛'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다.

제14회 〈책의 날 기념식〉 열려

제14회 〈책의 날 기념식〉이 지난 10월 11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책의 날을 만드는 글〉 낭독, 나춘호 회장의 기념사,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의 축사, 각종 시상식 순서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정부표창과 독서진흥상, 한국출판공로상, 관련업계 출판 유공자 시상순으로 이어졌다. 정부표창에서 대통령상은 세계사 최선호 대



〈책의 날〉을 기념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세계사 최선호 대표이사 (위)와 미진사 김현표 대표.

표이사와 미진사 김현표 대표가 각각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미술서적 출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주)까치글방의 박종만 대표이사와 서광사 김신혁 대표, 해천대학 전자출판과 이종국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은 20명의 명

단은 다음과 같다.

▲석정 황의민 대표 ▲대영문화사 임춘환 대표 ▲(주)보리 정낙목 대표이사 ▲우석출판사 김석중 대표 ▲불교시대사 김병무 대표 ▲(주)한국뉴턴 유성규 대표이사 ▲대현출판사 김종근 대표 ▲양서원 송창섭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출판국 임해순 대표 ▲유한문화사 천승배 대표 ▲건설문화사 안항원 대표 ▲광문각 박정태 대표 ▲Ohm사 광종학 대표 ▲문예림 서덕일 대표 ▲오늘출판사 이종천 대표 ▲새샘유타렉 대표 ▲계명사 이옥규 대표 ▲(사)한국방문판매협회 배기정 전무이사 ▲사계절출판사 강팔실 대표 ▲한양대학교출판부 김창규 출판과장.

또한 제7회 독서진흥상에서 문고 부문은 새마

을문고 진주시 상봉동 분회가, 단체 부문은 삼성카드(주)가, 개인 부문은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수원지역 대표인 심은정씨가 각각 수상했다. 제30회 한국출판공로상에는 기획·편집 부문에 (주)중앙교육문화사 허상만 전무와 (주)학원사 엄희자 출판국장이, 영업 부문에 백산출판사 김시호 상무와 (사)샘터사 임석현 이사가, 관리 부문에 성안당 홍태성 부장이 각각 수상했다. 2000년도 관련업계 출판 유공자로는 인쇄 부문에 (주)경림코퍼레이션 리우식 대표이사가, 제책 부문에 우진제책사 김을산 대표가, 서적상 부문에 부산광역시서점조합 박상수 조합장의 5명이 수상했다.

간행물위원회, 〈10월의 입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는 〈10월의 입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는 《삿뿔로 여인숙》(하성란, 이룸), 《역사를 위한

변명》(마크 블록, 고봉만, 한길사), 《아빠와 함께 떠나는 철학여행》(에바 줄러, 김현자 외, 인북스),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윌리엄 라이딩스 2세 외, 김형곤, 한국언론자료간행위원회), 《한국호의 침몰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한다》(지만원, 현암사), 《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보고서》(C. 프레드 엘퍼드, 남경태, 그린비), 《우주의 수수께끼》(케르하르트 슈타군, 이민용, 이끌리오),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김정동, 대원사), 《초대》(김태길, 샘터), 《세계 어린이가 함께 읽는 우리 옛 동시》(김시습 외, 최 향 율음, 박요한 그림) 등이다.

⇒ www.kpec.or.kr

한국서련·출판협회 공동 집계

베스트셀러 종합순위 2000.9.30~10.6

| 순위 | 제목 | 저자 | 출판사 | 분야 |
|----|--------------------|------------|-------|------|
| 1 | 국화꽃 향기 | 김하인 | 생각의나무 | 소설 |
| 2 | 가시고기 | 조창인 | 밝은세상 | 소설 |
| 3 |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 로버트 기요사키 외 | 황금가지 | 사회과학 |
| 4 |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 오하라 미쓰오 | 북하우스 | 비소설 |
| 5 |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 피에르 생소 | 동문선 | 비소설 |
| 6 |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 게일 에반스 | 해냄 | 비소설 |
| 7 |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 조앤 K. 롤링 | 문학수첩 | 소설 |
| 8 | 상실의 시대 | 무라카미 하루키 | 문학사상사 | 소설 |
| 9 | 삿뿔로 여인숙 | 하성란 | 이룸 | 소설 |
| 10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 스펜서 존슨 | 진명 | 비소설 |

하이데거에 있어서 존재와 현존재

김종두 지음/592면/25,000원

이 책은 후기 하이데거의 자기 해석에 기초한 《존재와 시간》을 재조명한 것으로 저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에 대해 하이데거의 저서를 통해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깊은 사유가 우리 자신의 다양한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한국인의 종교경험-천도교·대종교

차욱승 지음/320면/11,000원

이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공동체적 생명 사상을 담고 있는 천도교와 민족의 운명 개척에 앞장 서 왔던 대종교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각각의 종교가 천도교인과 대종교인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모습을 그들의 종교 경험을 통해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

프리도 릭켄 지음/김성진 옮김/432면/15,000원

이 책은 기원전 8세기 헤시오도스에서 기원후 6세기 신플라톤주의까지를 다룸으로써 고대의 대표 철학자들을 풍부하고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단지 철학사의 과거를 서술하고 보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현재의 철학적 대화 상대자가 되게 하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130-82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 924-6161 편집 924-6165 팩스 922-4993

E-mail : phil6161@chollian.net

http://www.seokwangsa.co.kr